

2013학년도 중앙대학교 전국 모의논술

Section 03

인문계열



모의논술 문제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울증이 집안 내력이라는 점은 19세기부터 이미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한 가족 안에서 이런 병을 앓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예는 드물지 않다. 약 50년 전부터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된 수많은 연구가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준다.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전적 요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반면, 이란성 쌍둥이의 유전자는 동일하지 않다. 연구의 결과, 둘 모두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비율은 일란성이 이란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란성의 경우 이 비율은 약 60%이고, 이란성의 경우 이보다 매우 낮다. 환경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둘 모두 우울증으로 진단된 비율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들에게서 관찰된 비율과 유사하다.

나

우울증은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기도 한다. 우울증의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좀 더 이상적인 대상의 상실일 수도 있다. 대상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그렇다. 예컨대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떠나버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그와 같은 종류의 상실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경우는 환자가 자신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환자가 자신의 우울증을 불러일으킨 상실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우울할 수 있다. 가령,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의 '어떤 것'을 상실했는지 모를 경우, 우리는 환자가 상실을 의식의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울증이란 무의식적 차원의 대상 상실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다.

다

평소에 자신을 어떻게 성찰하는지 살펴보자. 사람들은 대부분 친구나 이웃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만약 친구들이 멋진 파티를 열기 시작하면 자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더 큰 자동차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자. 사람들이 대부분 소형차를 몰 때는 자신의 차에 별 불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좋은 차를 몰기 시작하면 자신도 좋은 차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처음 좋은 차를 몰기 시작한 사람은 정말 좋은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좋은 차를 가지게 되면 정말 좋았던 기분은 사라지고 소형차를 가졌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기분을 느낀다.

이와 유사하게 나는 직장에서 내 소득을 동료와 비교한다. 소득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소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가치라고 생각해 자신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을 같은 직장의 동료나 다른 직장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득을 정확히는 몰라도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알 수 있다. 확실히 우리는 소득의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 수준에도 신경을 쓴다.

사람들이 자신의 월급을 비교할 때 유명한 영화배우나 극빈자가 아니라 주로 가까운 사람들과 비교한다. 특히 준거집단과의 비교가 문제가 된다. 우리는 톰 크루즈의 소득은 비현실적이라 여기지만, 준거집단의 소득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런 이유로 올림픽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는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만족스러워한다. 동메달리스트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지만, 은메달리스트는 자신이 딸 수도 있었던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라

정신병원, 감옥, 병영, 공장으로 이루어진 ‘규율사회’는 더 이상 오늘의 사회가 아니다. 규율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사회가 들어선 것이다. 그것은 헬스클럽, 오피스 빌딩, 은행, 공항, 쇼핑몰, 유전자 실험실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21세기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 이 사회의 주민은 더 이상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성과주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이다.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규정하는 것은 금지의 부정성이다. ‘~해서는 안된다’가 여기서 지배적인 조동사가 된다. 성과사회는 점점 더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점증하는 탈규제의 경향이 부정성을 폐기하고 있다.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이 성과사회의 긍정적 조동사이다. “Yes, we can!”이라는 복수형 긍정은 이러한 사회의 긍정적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 이제 금지, 명령,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진취성, 동기부여가 대신한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성과를 향한 압박이 우울증을 초래한다.

긍정성의 과잉 상태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력하게 내던져진 새로운 인간형은 그 어떤 주권도 지니지 못한다. 우울한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로서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우울증은 성과주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일과 능력의 피로이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성과주체는 자기 자신과 전쟁 상태에 있다. 우울증 환자는 이러한 내면화된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이다.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으로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을 반영한다.

마

사람은 저마다 저다운 마음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본다. 그 안경의 빛깔이 검고 흐린 사람도 있고 맑고 깨끗한 사람도 있다. 검은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느냐? 푸른 안경을 통해서 인생을 내다보느냐? 그것은 마음에 달린 문제이다. 불평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내다보면 듣고 경험하는 것이 모두 불평 투성이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에서 축복하고 싶은 것이 한없이 많을 것이다.

똑같은 달을 바라보면서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혹은 슬프게, 혹은 정답게, 혹은 허무하게 느껴진다. 행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육체를 쓰고 사는 정신인 이상, 또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인 이상, 누구든지 먹고 살기 위한 의식주와 처자와 친구와 명성과 사회적 지위가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돈, 건강, 가정, 명성, 쾌락 등은 행복에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곧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하다는 것과 행복의 조건을 갖

는다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별개의 문제이다. 집을 지으려면 돌과 나무와 흙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갖추었다고 곧 집이 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논리다.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행복감을 떠나서 행복이 달리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높고 좋은 가정을 갖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면서도 불행한 사람, 그와 반대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별로 갖지 못하면서도 사실상 행복한 사람이 있다.

바

그러고 보니 인간이 서로를 괴롭히는 것처럼 불쾌한 일은 없다. 그중에서도 화가 치밀 정도로 지긋지긋한 일은 젊은이들이 온갖 즐거움에 스스로 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꽃다운 청춘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을 찌푸리고 우울해하며 즐거운 나날을 망쳐버리는 일이다. 그들은 상당 시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돌이킬 수 없이 좋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나는 이점에 대해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저녁 때 목사관으로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실 때 화제가 인생의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옮겨가자, 이야기의 실마리를 붙잡고 번덕스러운 우울증에 대해서 맹렬한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인간들은 흔히”하고 나는 말문을 열었다. “즐거운 날이 아주 적고, 반대로 나쁜 날이 너무나 많다고 불평을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이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신께서 우리에게 날이면 날마다 마련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인다면, 설사 우울한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어 낼 힘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걸요”하고 목사 부인은 대꾸했다. 그러자 로테가 말했다. “저로서는 적어도, 우울한 기분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달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에 비춰보면 알 수 있는 걸요. 왜 그런지 정신이 산란하고 우울하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원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대무곡을 몇 곡 불러보거든요. 그러면 거뜬히 나아버린답니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이 그것입니다”하고 나는 대답했다. “우울증이란 꼭 게으름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인간의 천성은 게으름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분발하기만 하면, 일은 잘 진척되고 활동 속에서 참다운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1] ‘감정의 동인(動因)’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기술하시오.

[40점, 530~550자]

[문제 2] 제시문 (가)와 (라)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마)와 (바)의 공통된 논지를 비판하시오.

[40점, 530~550자]

[문제 3]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최근 신인 가수를 선발하는 다양한 TV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A도시 출신의 참가자 3명과 B도시 출신의 참가자 3명에 대한 지역 예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음악 평론가 K는 A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실력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K는 참가자 6명의 심사 점수에 대하여 순위를 부여한 후, A

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순위의 합이 작을 경우 자신의 예상이 옳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참가자에 대한 점수의 만점은 100점이고 동점은 없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참가자 6명의 심사 점수와 순위가 아래의 표와 같다면, A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순위의 합은 9가 된다.

출신 도시	A	A	A	B	B	B
심사 점수	90	82	86	78	87	85
순위	1	5	3	6	2	4

A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순위의 합이 작을수록 K의 예상이 설득력을 얻지만, K는 순위의 합이 얼마까지 나와야 자신의 예상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K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려면 A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순위의 합이 어떤 값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그 값을 구하는 과정을 기술하시오. 이때 A도시와 B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실력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의 예상이 옳다는 결론이 나올 오류의 가능성은 30% 이하라고 하자.

- 끝 -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① 평가 목표

인문계 논술시험은 통합적인 지식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와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한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 언어적 표현력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1번과 2번 문항에서는 '감정의 동인(動因)'이라는 하나의 주제 속에 포함된 다양한 시각들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고 종합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 또한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견해의 논리적·현실적 문제점을 추출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동시에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인문학적·사회과학적·자연과학적 제시문들의 논지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3번 문항에서는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응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②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인간의 '감정'을 설명하는 텍스트의 논지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독해력과 논리적 분별력을 평가하고, 이 차이점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 낼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제되었다. 인간의 특정한 감정이 발생할 수 있는 동인을 네 가지 차원(임상병리학적 영역, 심리적 관점, 사회학적 시각, 사회철학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현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력과 상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따라서 제시문 (가)~(라)를 꼼꼼하게 숙독한 후, 우울증과 같은 특정한 감정은 환경적, 후천적 조건보다 유전적, 생리적 요인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사례 결과(가), 우울증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지속되는 감정이라는 논지(나),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는 타인과의 비교와 그에 따른 상대적 우위 또는 박탈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다), 그리고 우울증은 성과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회시스템이 낳은 만성질환이라는 논지(라)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이 네 논지의 차이를 자신의 언어로 분명하게 논술하되,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2]

이 문제는 삼 단계 사유능력을 평가해보고자 출제되었다. 인간의 감정 발생 동인에 대한 서로 상반된 주장을 전개하는 제시문 (가)와 (라)의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할 수 있는 사유능력을 평가하고, 두 제시문 (마)와 (바)의 공통된 논지, 즉 인간의 감정은 마음자세, 의지, 그리고 자기 컨트롤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파악하는 통합적 사고능력을 측정한 후, 다시 (가)와 (라)의 논지를 근거로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능력을 평가하는데 이 문제의 출제의 의도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시문 (가)로부터 우울증은 유전적, 생리적 요소가 우울증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치료하기 쉽지 않다는 논지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 (라)를 통해서도 우울증은 성과중심사회의 산물, 즉 시대의 질병이라는 점을 통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회구조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시문 (마)를 통해서도 감정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며, 인간의 의지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능함을 파악해야 한다. 계속해서 제시문 (바)를 통해서도 우울증은 긍정적인 마음가짐, 여가활동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핵심논지를 간파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시문 (가)와 (라)의 통합적 논지, 즉 인간의 감정은 천성적 기질,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환경적 요인의 복합체라는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주장, 즉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면 감정을 자기마음과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논지를 비판하고, 이를 통해 감정의 발생 동인과 변화의 가능성을 다양한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출제되었다.

[문제 3]

이 문제는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수식화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수리적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총 6명의 참가자 수를 고려할 때, A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가능한 순위의 합은 6부터 15까지이고, A도시와 B도시 출신자의 실력이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가능한 값에 대하여 확률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요구되는 수학적 지식은 '경우의 수'의 기초적인 내용을 넘어서지 않는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베르나르 그랑제, 임희근 옮김 『우울증: 우울증 환자는 나약한가』(웅진하우스 2007).

- 제시문 (나)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옮김, 『무의식에 관하여』(열린책들 1997)
- 제시문 (다) 리처드 레이어드, 정은아 옮김, 『행복의 함정: 가질수록 행복은 왜 줄어드는가』(타임교육 2011).
- 제시문 (라) 한병철,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문학과 지성사 2012).
- 제시문 (마) 안병욱, 『행복의 메타포』,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상)』(교학사 2008)
- 제시문 (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박창기 옮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민음사 1999).

제시문 (가)는 베르나르 그랑제의 『우울증: 우울증 환자는 나약한가』에서 발췌하였다. 그랑제는 프랑스 파리 제5대학교 정신과 교수로 정신질환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랑제는 우울증을 21세기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와 달리, 우울증은 수천 년 전에도 있었을 정도로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한다. 그랑제의 문제의식은 우울증의 역사가 오랜 만큼 우울증에 관한 오해와 편견도 크다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우울증은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랑제는 우울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연구를 망라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제시문은 우울증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뿐 아니라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촉발된다는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관하여』에서 발췌한 텍스트로, 우울증은 무의식적 차원의 대상상실과 연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애도와 우울증을 구분하면서 애도는 상실과 대면하면서 주체가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인데 반해, 우울증은 상실한 대상이 무의식적인 것이므로 슬픔의 대상조차 뚜렷이 알 수 없는 심인성 질병이라고 본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우울증이 겉보기에는 대상상실을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아의 상실감으로 인해 고통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라 주장한다. 대상상실이 자아상실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제시문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의 한 측면을 이해하게 한다.

제시문 (다)는 리처드 레이어드의 『행복의 함정: 가질수록 행복은 왜 줄어드는가』에서 발췌하였다. 레이어드는 런던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의 교수로 고용, 불평등, 경제성장 등 경제학의 다양한 핵심 주제를 탐구해왔다. 레이어드에 따르면, 행복과 관련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으며, 많은 국가의 정부들도 이에 근거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지난 5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개인의 행복지수는 개선되지 않는 ‘행복의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레이어드는 가족의 해체, 사회적 신뢰의 감소, 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가 행복의 역설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제시문은 개인의 행복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와 그에 따른 상대적 우위 또는 박탈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재독 철학자 한병철의 『피로사회』에서 발췌한 텍스트로서, 현대인이 앓는 우울증은 사회적 질병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금까지 근대 서양사회를 지배해온 부정성의 패러다임(금지, 강제, 규율, 의무)이 21세기 초부터 긍정성의 패러다임(능력, 성과, 자기주도, 동기부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주체의 개념도 과거의 푸코적 의미의 ‘복종적 주체’에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성과주체’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긍정성의 과잉요구, 즉 보다 높은 성과의 압박이 현대인을 새로운 궁지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주체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마모시킴으로써 중국에는 낙오자나 우울증환자로 전락할 수 있다난 것이 이 제시문의 테제이다. 요컨대 우울증은 성과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회시스템이 낳은 만성질환이다.

제시문 (마)는 안병욱의 1962년 발간된 사색인의 향연에 실린 ‘행복(幸福)의 메타포’의 일부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을 옮겼다. 이 수필은 ‘앓은뱅이 꽃의 노래,’ ‘세 사람의 석공,’ ‘밀레의 만종’ 등 각기 다른 소재의 세 글로 구성되어 있다. 각기 다른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만,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행복에는 돈, 건강, 가정, 명성, 쾌락 등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다. 제시문은 ‘세 사람의 석공’ 가운데서 발췌한 것으로,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행복하다는 것과 행복의 조건을 갖는다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바)는 질풍노도 시대를 이끈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중 7월 1일자 편지에서 인용한 텍스트로서, 우울증과 같은 불쾌한 감정도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로테와 베르테르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우울증은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을 갉아먹는 게으름과 같은 악덕이지만, 이 우울증은 긍정적인 마음가짐, 분발, 종교 활동, 신의 은총, 산책, 여가활동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문의 핵심 논지이다. 로테를 사랑하고 연모하는 베르테르의 충절한 감정에서 우울증 극복의 확신이 움튼 것이다.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공통적으로 특정한 감정이 발생하는 동인을 기술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우울증 사례연구의 결과를 통해, 환경적, 후천적 조건보다 유전적, 생리적 요인이 우울증 발병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임상병리학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우울은 상실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의 단계를 넘어 무의식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지속되는 감정임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서술한다. 제시문 (다)의 논지는 만족과 불만족과 같은 감정은 준거집단과의 비교우위나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달리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판단의 척도가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현대인이 앓는 우울증은 성과중심 사회의 부산물임을 주장함으로써 감정발생의 사회구조적 동인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가)와 (나)는 감정의 동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제시한다면, (다)와 (라)는 개인과 타자(시스템)와의 사회적 역학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은 유전자, (무)의식, 상호관계, 사회변화 등 여러 가지 동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형성된다. [547자]

[문제 2] 제시문 (가)는 우울증의 발생 요인으로 생물학적인 것에 주목한다. 유전적, 생리적 요소가 우울증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치료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우울증이 성과중심사회의 산물이며 시대의 질병이라 보고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므로 그러한 구조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반면, 제시문 (마)는 감정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며, 인간의 의지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제시문 (바) 또한 우울증을 게으름에 비유하면서 인간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감정이라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라)를 통합해서 판단할 때, 인간의 감정은 천성적 기질,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환경적 요인의 복합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에서처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면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감정의 발생 동인과 변화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534자]

[문제 3]

A도시와 B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심사 점수 배열과 이때 A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순위의 합은 다음 표와 같다. A도시와 B도시 참가자들의 실력이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각 배열의 확률은 모두 $1/20$ 로 동일하게 된다. ($20=6!/(3!\times 3!)$)

번호	심사 점수 배열 (작은 값 → 큰 값)	A도시 출신자 순위	A도시 출신자 순위 합
1	BBBAAA	1,2,3	6
2	BBABAA	1,2,4	7
3	BABBAA	1,2,5	8
4	BBAABA	1,3,4	8
5	ABBBAA	1,2,6	9
6	BABABA	1,3,5	9
7	BBAAAB	2,3,4	9
8	ABBABA	1,3,6	10
9	BAABBA	1,4,5	10
10	BABAAB	2,3,5	10
11	ABABBA	1,4,6	11
12	ABBAAB	2,3,6	11
13	BAABAB	2,4,5	11
14	AABBBB	1,5,6	12
15	ABABAB	2,4,6	12
16	BAAABB	3,4,5	12
17	AABBAB	2,5,6	13
18	ABAABB	3,4,6	13
19	AABABB	3,5,6	14
20	AAABBB	4,5,6	15

위의 표에 근거하여 A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순위의 합에 대한 확률과 누적 확률은 다음과 같다.

순위 합	6	7	8	9	10	11	12	13	14	15
확률	1/20	1/20	2/20	3/20	3/20	3/20	3/20	2/20	1/20	1/20
누적확률	1/20 0.05	2/20 0.1	4/20 0.2	7/20 0.35	10/20 0.5	13/20 0.65	16/20 0.80	18/20 0.9	19/20 0.95	20/20 1.0

따라서 A도시와 B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실력이 차이가 없는데 K의 생각이 옳다는 결론을 얻을 오류의 가능성을 30% 이하로 한다면, A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순위의 합이 8 이하가 되어야 K씨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P(\text{A도시 순위 합} \leq c \mid \text{A도시와 B도시 차이 없음}) \leq 0.3$$

이 되고, 위의 표로부터 상수 c 는 8이 된다.

만일 위의 배열의 표에서 A도시와 B도시 출신 참가자들을 각각 구분한다면 (즉, A1, A2, A3, B1, B2, B3로 구분) 모두 $6!=720$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따라서 확률과 누적 확률의 표에서 분모는 720이 되고, 분자는 A1, A2, A3의 순서와 B1, B2, B3의 순서를 고려하여 각 경우마다 $3!\times 3!=36$ 만큼 곱해져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글의 내용과 구성 : 40점

- ① 다양한 차원에서 인간의 '감정'을 설명하는 네 제시문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20점)
 - 제시문 (가) : 우울증과 같은 특정한 감정은 환경적, 후천적 조건보다 유전적, 생리적 요인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1-5점)
 - 제시문 (나) : 우울증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지속되는 감정이다. (1-5점)
 - 제시문 (다) :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는 타인과의 비교와 그에 따른 상대적 우위 또는 박탈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5점)
 - 제시문 (라) : 우울증은 성과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회시스템이 낳은 만성질환이다. (1-5점)
- ② 이 네 논지의 차이를 자신의 언어로 분명하게 논술하되,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5-10점)

2. 감점 사항

- ① 글자 수 위반(최대 2점 감점)
 - 기준 글자 수에서 ± 10 -25자까지는 1점 감점
 - 기준 글자 수에서 ± 26 자 이상부터는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을 감점.
-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글의 내용과 구성

- ① 제시문 (가)와 제시문 (라)의 각각의 논지를 파악하고 종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즉 제시문 (가)로부터 우울증은 유전적, 생리적 요소가 우울증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치료하기 쉽지 않다는 논지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하고, 제시문 (라)를 통해서는 우울증은 성과중심사회의 산물, 즉 시대의 질병이라는 점을 통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회구조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감정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한다. (3-10점)
- ②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의 공통점을 찾는 능력을 평가한다. 즉, 제시문 (마)를 통해서는 감정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며, 인간의 의지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능함을 파악해야 한다. 계속해서 제시문 (바)를 통해서는 우울증은 긍정적인 마음가짐, 여가활동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핵심논지를 간파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3-10점)
- ③ 제시문 (가)와 (라)의 통합적 논지를 고려하여 제시문 (마)와 (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즉 인간의 감정은 천성적 기질,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환경적 요인의 복합체라는 논지를 토대

로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주장, 즉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면 감정을 자기마음과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논지를 비판하고, 이를 통해 감정의 발생 동인과 변화의 가능성을 다양한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인간의 감정이 마음먹은 대로 조종되고 의지로 극복될 수 있다는 (마)와 (바)의 가정은, 1) 선천적으로 특정한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우울한 기질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힘들고, 2) 경쟁중심주 시스템이 인간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적용되기 힘들다. (5-20점)

2. 감점 사항

- ① 글자 수 위반(최대 2점 감점)
 - 기준 글자 수에서 ± 10 -25자까지는 1점 감점
 - 기준 글자 수에서 ± 26 자 이상부터는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을 감점
-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문제 3]

채점기준 : 20점

1. 점수 부여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①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표현한다. (3점)
- ② A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가능한 순위의 합은 6부터 15까지임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4점)
- ③ A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가능한 순위 합에 대한 확률을 계산한다. 이때 A도시와 B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실력에 차이가 없다면 가능한 심사 점수 배열에 대한 확률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점)
- ④ A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가능한 순위 합에 대한 확률 및 누적확률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선정한다. (5점)

2. 감점

- 단계 ①에서,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각각 1~3점 감점할 수 있다.
- 단계 ②에서, A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가능한 순위의 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1~4점 감점할 수 있다.
- 단계 ③에서, 가능한 심사 점수 배열을 나열하고 이를 이용하여 A도시 출신 참가자들의 가능한 순위 합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계산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1~8점 감점할 수 있다.
- 단계 ④에서, 단계 ③에서 계산한 가능한 순위 합에 대한 확률 및 누적확률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선정할 때 이를 잘못 선정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1~5점 감점할 수 있다.